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1. 8. 4.(수) /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국제항공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김홍락, 사무관 황성필, 주무관 이혜신 • ☎ (044) 201-4211, 4210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인천 - 울란바타르 하늘길 넓어진다.

- 8.2~3일 한-몽골 항공회담 개최...'22년도부터 성수기 주9회 추가운항으로 주5,000석까지 확대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8.2~3일 인천에서 한-몽골 간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인천-울란바타르 노선에 대해 여객 직항 항공편 공급력 증대를 합의하는 MOU(양해각서)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.
- 그간 몽골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찾은 여행지 중 하나로, 인천-울란바타르 노선은 한 해 양국 간 항공 여객수가 40여만명('19년 기준)*에 달하였고, 최근 연평균 6.8%('15~'19)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노선이었다.
 - * 수송실적(탑승률) : '15년 30.0만여명(81.9%) → '16년 30.7만여명(82.9%) → '17년 33.9만여명(87.6%) → '18년 36.4만여명(86.8%) → '19년 39.2만여명(83.3%)
- 기존 대한항공이 단독 운항하였던 해당 노선은 '19.1월 한-몽골 항공회담을 통해 아시아나항공까지 운항*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체제로 전환하였으나,
 - * '19.7월 이후 대한항공 주6회, 아시아나항공 주3회 운항(코로나 확산으로 중단 중)

- 그럼에도 성수기에는 **탑승률이 90%*** 달하여, 항공권 가격이 높고 만성적인 항공권 부족이 발생하는 등 양국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.

* '19년 연중 평균탑승률 84%, 성수기(5~9월) 89% (국적 항공사 기준)

-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은 **인천-울란바타르 노선**에 대해 기존에 국가별 주당 **2,500석**으로 제한되어 있던 항공 공급력을 '22년도부터 성수기(6~9월)에 한해 **국가별 주당 5,000석***으로 대폭 증대하였다.

* 증대된 주2,500석 범위 내에서 기존 및 신규 항공사가 주9회 추가 운항 가능

- 이를 통해, 현재 운항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에 **새로운 항공사가 진입할 수 있고 기존 항공사도 운항을 확대할 수 있는** 기반을 마련하였다.

- 이 외에도 양국은, 코로나 시대 긴급하게 양국을 오가는 교민 등의 항공 이동과 몽골로의 방역물품 수송 등을 지원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.

- 국토교통부 윤진환 항공정책관은 “이번 인천-울란바타르 노선 공급력 증대는,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항공사들이 **코로나 극복 이후 운항을 확대할 수** 기회가 될 것”이며,

- “그간 높은 항공운임과 항공권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오던 양국 관광객, 유학생 및 기업인들이 한결 편리하게 양국을 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황성필 사무관(☎ 044-201-421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